

## 2023 KAISTian Failure Story 수상작 연재

CAF뉴스레터는 2023년 실패연구소 에세이 공모전  
‘KAISTian Failure Story’ 수상작을 연재합니다.  
이번호에 실린 에세이는 ‘공감상’을 수상한 두개의  
작품입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는 KAISTian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에세이공모전 수상작 연재

# KAISTian story



# 행복한 소년

○○○  
(KAIST 수리과학과)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채 엎드려 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남성은 갑자기 팔을 이빨로 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 사람처럼 몸부림치더니 급기야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남성의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이제는 자신도 조절하지 못한다는 듯이 헛구역질해대기 시작했고, 허겁지겁 서랍에 있던 약을 찾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남성은 과거에 해맑게 웃던 자신의 과거를 상상하며 세상을 증오했고, 현실을 부정했고, 스스로를 혐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이 휴학하고 방에 틀어박힌 뒤, 혼자 남모르게 겪던 비밀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지 않아 다행이라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감정들이 가족들에게 전염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이렇게 속으로 아무한테도 하지 못할 생각들을 내뱉으면서. 도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실패를 겪었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걸까요?

20년 전, 제주도에 세상 물정 모르고 언제나 해맑게 웃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른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면 인사를 했고, 존댓말을 쓰라면 존댓말을 썼고, 공부하라면 공부하는 등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크게 혼이 났던 것도 아니었고, 다른 큰 계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런 행동에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른 보상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착한 아이다',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자주 했고, 다른 친구 부모들은 대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부모 말을 잘 듣는지 가르쳐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을수록,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모습에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소년은 이 행복이 당연하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7살이 되는 날, 처음으로 부모님이 서로 언쟁을 하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소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부모님이 싸우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가족들은 지쳐가고 소년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들어온 소년은 TV를 큰소리로 틀었습니다. 당시에는 ‘개그콘서트’, ‘1박2일’ 같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소년은 그 프로그램들을 보고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부럽다, 나는 어째서 저 사람들처럼 웃을 수 없는 걸까?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데, 왜 다들 그러지 못하고 싸우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여태껏 싸움 중 가장 큰 억양으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소년의 동생이 몹시 아픈 날이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에게 동생의 간호를 맡기고 거실로 나갔고, 이후 들려온 끔찍한 소음에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소년은 동생의 몸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괜찮아’, ‘내일은 좋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이렇게 속으로 되뇌고 있었는데, 동생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왜 울어?”

잠시 멈췄던 소년의 얼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물범벅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웃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도 가족도 행복해지자고, 안 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찾아서 되게 만들겠다고. 그 뒤, 소년은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지도 않던 장난을 치고, 자주 웃고, TV나 만화에서 웃겼던 대사들을 가족들에게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싸우면 중간에 끼어들어 중재하거나 혼자 방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착한 아이 행세를 했고, 친구들이 장난을 쳐도 당해주는 척하며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소년의 행동에 보답하듯, 소년의 주변은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가족들은 싸우는 날보다 서로 웃는 날이 많아졌고, 소년을 시작으로 전염되듯이 웃음은 퍼져나가 서로 장난도 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성적도 매우 높아, 밖에서는 어른들에게 더욱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여겨졌고 친구들에게도 장난을 잘 받아주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며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의 미래는 앞으로 밝은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쉬웠던 공부가 조금씩 어려워졌고, 소년의 성적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통하던 부모님을 화해시키는 방법도 반복해서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잘 통하지 않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소년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찾아야만 해'. 하지만 소년은 몰랐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나 결함을 갖고 있고, 사람은 항상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소년은 자신이 어릴 때 본 TV 속, 만화 속 환상에 갇혀 애써 그런 사실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할 것만 같던 소년도 점점 지쳐갔고 시간이 흐를수록 소년의 결함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갖게 된 소년은 공부를 점점 게을리하게 됐고 부모님은 그런 소년을 혼내는 일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웃음을 위해 희생하던 소년을 아예 우습게 보고 선을 넘는 장난을 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이런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서 웃음기가 사라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갈수록 소년의 죄책감은 점차 늘어만 갔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리고…….'

'내가 쓸모없어서'

시간이 흘러 웃음기 넘치던 소년은 웃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성인이 되었고, 언제나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던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향한 끝없는 자책으로 변했습니다. 마침 소년이 대학에 들어갈 때 코로나가 터졌고, 아무도 소년에게 간섭하지 않게 되자 소년은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공부를 완전히 놓아버렸고 하루하루를 스마트폰에만 몰두하며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성실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댔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날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속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늘어갈수록 거짓말과 현실의 모습 사이에서 소년은 괴리감을 느꼈고, 스스로를 향한 자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강한 증오와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헛구역질을 해댔고, 공부는 5분 이상 집중하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밤에는 룸메이트가 깽깽 소리 없이 울고,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에게 돌아온 것은 2번의 학사 경고, 코 앞까지 다가온 제적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년의 혐오는 좀 잡을 수 없이 커져 어느새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겨우 이 일을 알게 된 아는 후배의 상담을 받아보라는 조언을 듣고 휴학을 해 본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 뒤로도 한동안 스스로를 혐오하며 지냈고, 결국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 행복을 바랐고,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소년은 어쩌서 스스로를 가장 혐오하고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던 걸까요? 소년의 능력이 아주 부족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물론 성적이 낮아 학사경고를 받은 것은 분명 소년의 공부와 꾸준함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년이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칭찬이었고, 오로지 비난만을 퍼부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소년의 20년 전체 인생은 실패밖에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는 부모님 사이에 용기 있게 끼어들어 화해를 주도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높은 성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을 과연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소년이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이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은 자신이 잘한 일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것, 그리고 객관적인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비난만을 한 점입니다. 또 그런 소년에게 저는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아무도 너한테 못 살았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결국 너의 주변에 남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너를 아끼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휴학한 뒤, 상담도 받고, 부모님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오해를 풀 소년은 1년 뒤 복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한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내일 할 일을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스스로를 향한 혐오감이 다시 찾아오는 날을 대비해 매일 감정 일기도 적어갑니다. 또 꾸준히 치료받고자 상담도 계속 받고요.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학사경고를 받지 않고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내일 할 일을 기록하는 습관은 과제나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게 만들어줬고, 감정 일기는 비관적인 사고를 잠재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상담과 약물 치료도 소년이 눈치채지 못한 자아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왔죠.

물론 소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똑같은 실패를 수없이 많이 반복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년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사실, 즉 실패를 거름 삼아 새로운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소년은 부딪히고 실패도 성공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언젠가 과거의 괴로운 기억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하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행복한 소년, 아니 행복한 청년이 되어있을 겁니다.

제가 이 소년의 이야기를 적은 이유는 소년과 똑같은 힘들음 겪고 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똑같이 자신의 성공은 바라보지 않고 실패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두려운 사람들, 물론 소년도 아직 실패가 아주 두렵고 이를 극복해 내지 못했지만, 굳이 극복해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쉬기도 하고, 천천히 걷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원하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실패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년에게 바칩니다.





